강이야기 · 4
River & Culture

신 현 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

살수(청천강)에서 수나라군을 무찌른 을지문덕

612년(고구려 영양왕 23년) 2월 평양성을 향해 급히 달려가는 기마 병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대궐 쪽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병사는 대궐에 닿자마자, 대궐 문을 지키는 군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요동 태수가 보낸 전령이다! 전하께 전할 급한 서신을 가지고 왔다!"

잠시 뒤, 병사는 궁궐 안에서 영양왕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영양왕은 병사가 바친 서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동 태수 한진, 전하께 아뢰옵니다. 수나라 양제가 지금 탁현 땅에 100만 대군을 모아들여 평양성을 목표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을 46군으로 나누어 하루에 1군씩 출발시켰는데, 출발하는데만 40일이 걸렸고, 그 행렬이 무려 960리에 이릅니다.

육군뿐 아니라 수군도 동원하였는데, 산동에서 출발한 배의 행렬이 200리에 뻗쳤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대군이라면 3월경에는 요하(랴오허 강)에까지 쳐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 한진은 목숨을 걸고 요동성을 지키겠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군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왕은 요동 태수의 서신을 읽고 나서 을지문덕을 궁궐로 불렀습니다.

"전하, 부르셨습니까?"

"어서 오시오. 방금 요동 태수가 보낸 서신을 받았는데, 수나라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전갈이오."

"예? 수나라에서 또 침략을……."

"그렇소. 14년 전에 수나라 문제가 30만 대군을 보냈다가 혼쭐이 나서 쫓겨가더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오. 그나저나 100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한 병력인데, 경이 나서서 적군을 물리쳐 줘야겠소. 경을 정로대장군으로 임명하니, 어서 군사를 모아 군대를 만드시오."

"알겠습니다."

을지문덕은 왕에게 공손히 절을 올린 뒤 궁궐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을지문덕은 젊은이들을 모아 훈련을 시켰습니다.

을지문덕의 양병 기술은 너무나 뛰어나,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고구려군은 강한 군대로 자리잡혀 갔습니다.

한편, 대장군 우문술, 우중문 등 644명의 장수와 113만 3,800명의 군졸로 이루어진 수나라 대군은 3월에 국경 지대인 요하 서쪽에 이르렀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띄웠습니다. 수백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배들을 향해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강 언덕에 숨어 있는 고구려 군사들이 화살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강에서는 그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 탄 군사들은 화살을 맞고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는 작전은 완전 실패였습니다.

수나라군은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배다리를 만들어 강을 단숨에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나라 군사들은 강에 배를 한 줄로 촘촘히 띄워 그 위에 널빤지를 까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배다리를 놓은 수나라군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군의 맹렬한 공격을 인해전술(많은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공격법)로 맞선 끝에 도강(강을 건너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수나라군은 질풍같이 쳐내려와, 4월에는 요동성을 포위했습니다.

사기가 오른 수나라 군사들은 요동성을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태수 서신의 지휘 아래 목숨을 걸고 용맹스럽게 싸우는 고구려군을 당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요동성은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습니다.

꽃 피는 봄이 지나 무더운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그 때까지도 요동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떠나올 때 100일분의 식량을 받았습니다. 식량 외에 짊어져야 할 짐은 무기, 옷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은 견디다 못해 식량을 중도에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배고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무렵,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망적인 소식이 수나라 진영에 전해졌습니다. 산동에서 출발한, 내호아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성으로 쳐들어갔다가, 고구려군에게 패했다는 것입니다. 수군 4만 가운데 살아남은 군사는 겨우 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 양제는 6월에 요동으로 왔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 얼마나 못났으면 싸움에서 패하느냐?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분수가 있지……."

양제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백만 대군이 몇 달째 작은 성 하나 함락시키지 못해 쩔쩔매지 않나, 4만 군사가 전멸당하지 않나…… 대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양제는 장수들을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요동성 공략에만 매달릴 수 없다.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작전 명령을 잘 들어라. 별동대를 동원하여 직접 평양성을 공격한다. 알겠나?"

"예!"

"부여도군장 우문술, 낙랑도군장 우중문, 옥저도군장 설세웅 등은 30만 5천 명의 별동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향해 진격하라! 만일 고구려의 국왕이나 을지문덕 장군이 중간에 찾아오면 절대로 풀어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붙잡아 두어라."

수나라 별동대 30만 5천 명은 양제의 명령에 따라 평양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요동을 떠나 압록강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압록강 대안에는 을지문덕의 고구려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압록강 물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적의 속사정과 나의 형편을 자세히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것다. 적군의 정세를 살피고 와야지.'

을지문덕은 수나라 별동대 진영을 찾아갔습니다.

"항복 문서를 가져왔소. 나는 고구려의 정로대장군 을지문덕이오."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항복하겠다고? 그게 정말인가?"

우중문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항복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사이 을지문덕은 날카로운 눈으로 수나라 진영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피로와 배고픔에 지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군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알 만했습니다.

우중문이 말했습니다.

"이까짓 종잇조각으로 우리가 당신들의 항복을 받아들일 것 같은가? 어림없는 일이지. 진정 항복을 원한다면 당신들의 왕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시오. 그러면 항복을 인정하겠소."

"알겠소. 전하께 당신들의 뜻을 전하리다."

을지문덕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압록강 가로 갔습니다.

을지문덕은 타고 온 배에 올랐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우중문이 강가로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을지 장군! 나 좀 봅시다. 잠시 의논할 일이 있소."

그러나 을지문덕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유유히 압록강을 건너갔습니다.

우중문은 멀어져 가는 배를 바라보며 속을 끓였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찾아오면 절대로 풀어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붙잡아 두어라.'

양제의 명령이 불현듯 떠올라 부리나케 쫓아왔지만,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우중문은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을지문덕을 풀어 준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양제에게 추궁받을 것을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우중문은 우문술을 불러 말했습니다.

"장군! 을지문덕을 추격하여 사로잡읍시다. 전군을 동원하여 고구려군을 무찌릅시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지금 식량이 거의 떨어져 모든 병사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 폐하께 건의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문술의 말에 우중문은 화를 벌컥 냈습니다.

"장군!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30만 대군을 거느리고도 작은 나라의 적은 병력을 무찌르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황제 폐하를 뵙겠소?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

"우리는 황제 폐하로부터 평양성 정벌을 하달받았소. 죽을 힘을 다해 고구려군을 물리쳐야 할 것이오."

수나라 별동대는 우중문의 뜻대로 출병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들은 압록강을 건너 고구려군과 첫 번째 전투를 벌였습니다.

"와! 와!"

수나라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고구려 군사들과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이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놈들이 도망친다! 모두 공격하라!"

우중문은 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의기양양하여 고구려군을 뒤쫓았습니다.

고구려군은 한참 도망치다가 멈추고는, 수나라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이런 식으로 싸우는 척하다가는 도망치고, 도망치다가는 또 싸우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나라군은 살수(청천강)를 건너 평양성 30리 밖까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을지문덕은 평양성으로 들어와 수나라군 진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리석게도 내 유인 작전에 말려들었구나. 우리를 쫓느라 지금쯤 지칠 대로 지쳐 있겠지.'

을지문덕은 성루에 서서 시 한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적어 우중문에게 보냈습니다.

우중문은 시가 적힌 종이를 펼쳐 보았습니다.

귀신 같은 책략은 천문을 꿰뚫고
절묘한 계략은 지리를 통달했도다.
싸워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

우중문은 시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항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사자를 보내어,

"항복하겠소.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시오. 그러면 임금을 모시고 양제를 찾아뵙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우중문은 우문술에게 을지문덕의 제의를 설명했습니다.

우문술이 반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것 참 잘 됐군요. 장군! 이번 기회에 철수합시다. 지금 우리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습니다. 무리한 행군과 전투로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 전에 양식이 떨어져, 풀뿌리로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병사들의 사정은 나도 잘 알고 있소. 이런 상태에서 난공불락의 평양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 치기일 거요. 어찌 되었든 항복이라도 받았으니 돌아가도록 합시다."

우중문과 우문술은 의논을 마친 뒤 군사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전대로 되어 가는구나. 이제부터 남의 땅을 함부로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해 주마.'

을지문덕은 고구려군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수나라군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놈들을 잡아라!"

수나라군은 이미 싸울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군사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고구려군에게 쫓긴 수나라군은 살수에 이르렀습니다. 강가를 둘러보니 배 한 척 없었습니다. 강을 건널 일이 까마득했습니다.

그 때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상류 쪽을 보십시오. 스님들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우중문과 우문술은 상류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바짓가랑이를 걷어붙인 스님들이 무릎쯤 차는 물을 텀벙텀벙 걷고 있었습니다.

우중문과 우문술은 병사들을 이끌고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모두 바짓가랑이를 걷어붙이고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을 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와! 와!"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수나라군을 향해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화살을 맞고 픽픽 쓰러졌습니다. 강물은 금세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강기슭에 고구려 군사들이 숨어 있다가 화살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수나라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별동대 30만 5천 명 가운데 살아남은 군사는 겨우 2,700여 명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둔 전투를 '살수 대첩'이라 합니다.

살수 대첩의 명장, 을지문덕에 대해서는 그 뒤의 행적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평양에 을지문덕 사당을 지어, 그의 업적을 기리는 제사를 해마다 드렸다고 합니다.